



제9회 경로법회 효강 종령 법어

오늘은 잊혀져가는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교도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매 2년 마다 열리는 경로법회 '어르신 큰잔치'를 봉행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동참하신 전국의 스승님과 보살님, 각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스스로가 노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 모든 것에 쉽게 포기하거나 스스로 나약한 존재로 여기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잡념에 시달리고, 그로인해 건강이 더욱더 나빠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진작에 진언염송을 만났더라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중생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 그 좋은 법을 몰라 저리도 미혹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가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교도님들은 종조님의 가르침을 일찍 받아 꾸준히 진언염송 수행을 해오셨고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잘 간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을 어찌하면 행복하고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人身難得(인신난득)이요, 佛法難逢(불법난봉)"이라, 此生失劫(차생실겁)하면, 萬劫難遇(만겁난우)이니라, 修持佛之正法(수지불지정법)하야, 日新勤修而不退(일신근수이불퇴)하고, 速成正覺(속정정각)하야, 還度衆生(환도중생)이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우니, 금생에 도를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라, 모름지기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고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람의 몸 받고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금강석처럼 귀한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진언염송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와 수행자의 차이점에 대해 한 연구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는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고, 수행자는 지도를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그 지도를 들고 직접 길을 나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고 한 길을 선택하였기에 때론 안개가 끼거나 울퉁불퉁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믿고 인내하며 애쓰는 것일 것입니다. 임제록 중에 "隨處作主 立處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서 모두 참된 것이 되고, 어떤 경계가 다 가온다 하여도 꼬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무간지옥에 들어갈 다섯 가지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용기를 가지고 진실하게 노력한다면 자신의 길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해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라, 마음 먹기에 따라 지옥과 극락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매일 참회 염송 정진하면 그 마음이 극락 같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종조님께서 온몸으로 체득하시고 설하신 법설(法說) 가운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진리의 법'에 "내 것이 없으니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 기억할 일 없으니 잊을 걱정이 없다. 구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이 없다. 미운 사람이 없으니 수원(讐怨)이 없다."는 법설과 제2절 수행 참회편에 "상대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고칠지니 나에게는도 무시이래 몸과 입과 뜻으로써 지어 모은 큰 허물이 수미산과 같은지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와 같은 큰 허물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참회하고 서원하면 나는 도로 복이 되어 일체 고통 소멸되며 내 허물이 없어질 때 저의 허물없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려 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끝으로 요즈음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금수(禽獸)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인간성을 상실한 까닭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자연의 파괴로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치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불법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잘 닦아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위태로운 지구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도여러분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 人人是好人(인인시호인) 事事是好事(사사시호사)"라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벌어지는 일마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좋은 일 속에서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0년 9월 21일
불교총지중 종령 효강 합장



학처럼 고고하게..
수행정진으로 즉신 성불 이루리라...

'어르신 큰잔치'에 동참하신 모두 교도 분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서원하며, 학초를 선보인 수인사 황보기문(월정) 각자님. 사진=김종열 기자

10월 불교총지중 화합과 도약의 행사 이어져

추계강공, 국제재가불자대회, 통일음악예술제 봉행 예정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불교총지중의 다양한 가을행사가 이어진다. 먼저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 대명콘도에서는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하는 제78회 추계강공회가 봉행된다. 이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5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서울 올림픽 파크텔 등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승단불교와 재가불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7개국 50여명의 학자 및 불교 관련 인사들이 방문한다. 대표적인 참석 인사로는 독일의 랍텐 센터의 거스윈트 박사 부부와 대만 대표로서 참석하는 장위링(세계여성불자대회장)으로 불교계에서는 국제적인 명성이 있다. 그 외 에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지의 동남아권 재가불자지도자들과 생활불교에 관심 있는 저명한 스님들이 참석한다. 26일 인천 베스트 웨스턴 호텔의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학술 토론회와 공연 등 일정으로 29일까지 공식 일정이 이어진다. (관련 특별

인터뷰 4.5면)

10월의 마지막 행사로 29일 오후 2시 총지중 교도들의 화합과 사회 통합을 염원하는 '총지40년 통일음악예술제'가 여의도 KBS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총지중 교도 및 불교계 내외의 귀빈 그리고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동참할 예정으로 총지중 위상 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종열 기자

제9회 불교총지중 '어르신 큰잔치' 봉행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로 뭉친 자리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대명리조트에서 제9회 어르신 큰잔치를 봉행했다. '하나되는 총지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봉행된 법회는 전국의 사원에서 교도 700여명이 동참 성황을 이루었다. 임제식에서 효강 종령은 법어를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금생의 도를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라, 모름지기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날

마다 새롭고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며 현생의 수행정진을 강조하였다. 지성 통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보살님과 각자님들께서 '하나 되는 총지인'이라는 주제처럼 법회기간동안 함께 웃고, 부처의 마음처럼 넉넉하고 자비로운 평안의 시간을 보내시어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는 행복과 자비의 웃음보파리를 가득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며 전교도가 하나 되는 잔치가 열렸음을

선포하였다. 임제식에 이어 개그맨 엄용수씨의 사회로 열린 전국사원 장기자랑대회에서는 총21개 사원이 참가, 수개월간 준비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렸다. 초청가수의 무대와 시상식을 끝으로 첫째 날 행사를 마쳤다. 둘째 날 아침부터 대명콘도 사우나 체험, 변산 채석강 관광 등을 마치고, 회향식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용맹정진 진언수행을 할 것을 서원했다. (관련 기사, 화보 3면)

부산=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감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2011년 불교총지중 "사회화합과 대중간 융화의 한마당,,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



정통밀교
불교총지중
Buddhist Chongji Order

2011년 10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KBS 홀

주최: 불교총지중
사회: 김자영 (전 KBS 아나운서)
연주: 메디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출연: 불교총지중 마니합창단, 금강합창단,
만다라합창단
특별출연: 주현미, 안치환, 추가열
최소리의 아리랑 파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총연합회, (사)한인불교문화재단, BNY, KTV, KBS, 한국방송, 법보신문, 우리불교,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민국의기독교종교연합회, 불교신문, 불교신문

원정대성사 제31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새 종풍운동으로 원정대성사의 법을 새로이 이어가자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 제31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8일 서울 원정 기념관을 비 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효 강종령은 멸도절 법어를 통해 “추선 불사를

우리는 의미는 불퇴전의 정신으로 종단 중흥을 이루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세워 온 종도가 하나가 되어 매진할 것이며, 그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새종풍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각오를 다짐하는데 있습니다.”며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일깨워 종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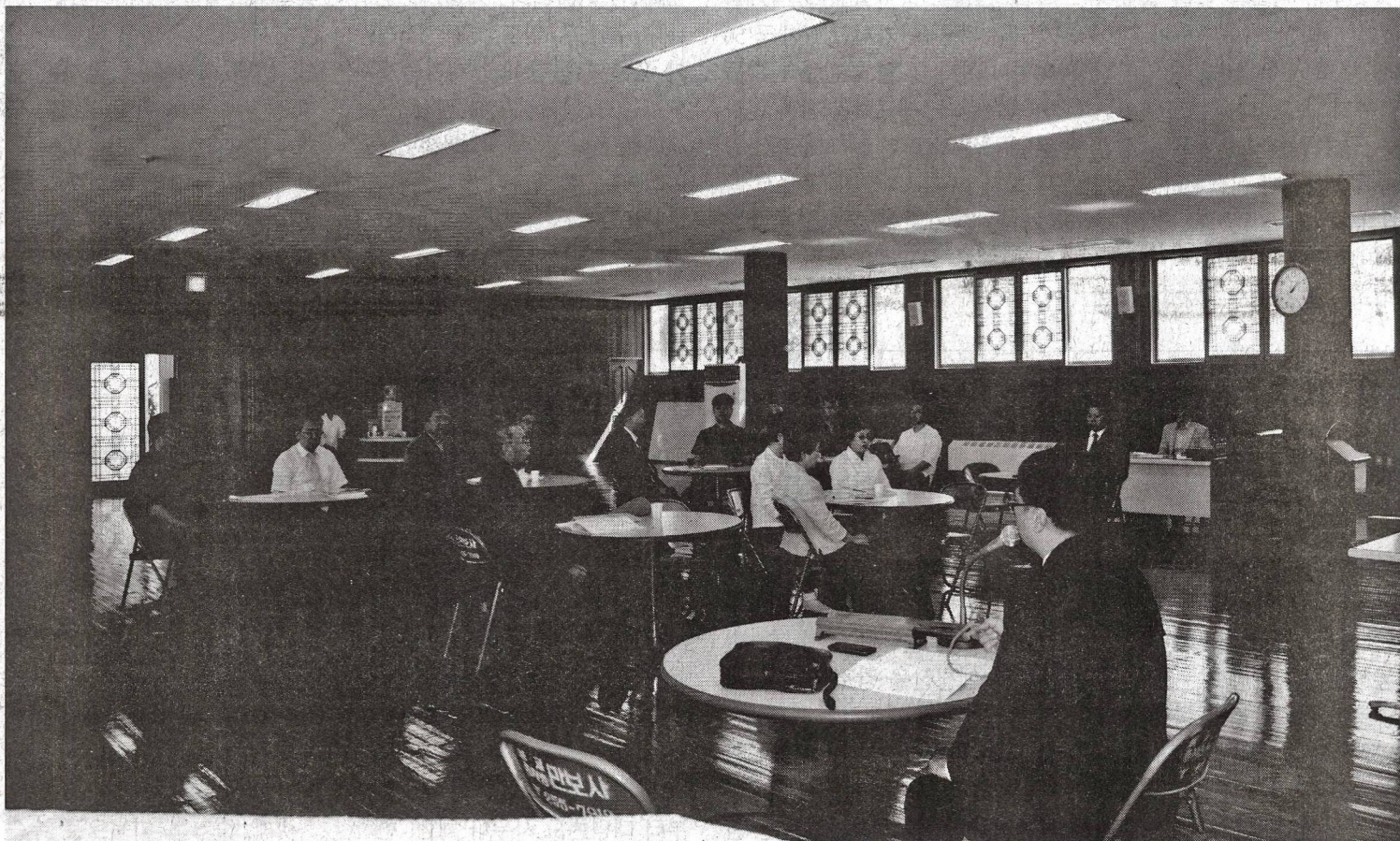
이어 지성총무원장은 “초가를 입에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큰명절을 앞두고, 공사가 다망하신 와중에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선불사 동참의 공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며 참석한 교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교도들은 한국불교에 밀교의 용어를 최초로 정립하시고, 준제법을 도입한 정통밀교종단을 이땅에 우뚝 세우신 원정 대성사의 법력이 세세생생 영원히 이어지기를 서원했다.

김종열 기자

제4차 총지종 정책토론회 대전 만보사에서 개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법요’ 개정안 시행 방안 논의



불교 총지종 제4차 정책토론회가 9월 27일 대전 만보사에서 개최되었다.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춘기강공회에서 선보였던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법요’ 개정 및 시연(試演)을 주제로 삼아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밀교연구소 법경정사가 그동안 각 사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들

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이어진 자유 토론회에서 지장보살 멸망장 진언 추가, 개정 법요의 가늠을 작업, 훈향정공의 음악 문제,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승단 교육 제안, 일반 재, 불공의 추복법문 다양화, 법문 및 발원문 집 책자 발간, 고정 장단과 음률에 의한 세 부적인 독송법 마련, 장소에 맞는 법구 사용, 죽비 크기 조정, 특관전 불사법요 제정, 의식

관련 용어와 개념 정립 작업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명절 제사와 기제사의 의식식순도 더욱 여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총령님의 재가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만보사 = 김종열기자

종립 동해중학교 제44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개교44주년 기념식이 9월 22일 해오름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통리원장과 법선 사무국장 및 총동창회 임원 및 재학생 학부모 등 약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근속 교사 표창과 총지종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졌다. 근속교사에는 30년을 맞는 장재계 교장선생님과 강태영교사 그리고 20년을 맞는 교직원 김효선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총지종 장학금은 2학년 이현보의 5명에게 전달되었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기념사를 통해 “훌륭한 선배들을 배출한 명문 동해중학교가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이 함께 노력하자.”며 제

2의 도약을 다짐했다.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통리원장은 축사에서 “불법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건학 이념을 구현해 부산 시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여 모든 학교가 부러워하는 학교로 발전시켜 가야 하겠습니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가제창을 끝으로 1부 기념식을 마치고, 2부에서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1967년 개교해 이진복 동래구 국회의원, 조현오 현 경찰청장 등 16,767명의 훌륭한 인재를 배출했다.

부산 동해중학교=김종열기자

종립 동해중학교 제137회 이사회 개최



9월 28일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재단 이사회가 학교 법

등 6명의 이사와 수현 정사, 박정선씨등 2명의 감사가 참석하였다. 이사장 지성정사의 위임을 받은 인선정사가 주재한 회

의에서 추경예산 심의, 임기완

료 감사 선임의 건이 논의되었다. 신임 감사로 경주 국광사 주교 안성정사가 선임되었다.

동해중학교=정종윤 선생님

구 벽룡사 부지 생활주택시설 착공 진택불사



총지종 서울.경인교구(교구장 시정정사)는 9월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 벽룡사 부지의 생활주택시설 착공 진택불사를 봉행했다.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시정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이날 불사는 인선 총무부장, 선도원 총지사 주교 등 스승님들과 김은숙 신정회장이 참석했다. 진택불공은 벽룡사의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원으로 쓰던 건물을 철거하고 재단 건물로 새로이 생활주택시설 2동을 건립하는 불사이다.

김종열 기자

벽룡사 산악회 지리산 천왕봉 등정

설악산, 오대산, 팔공산, 설악산, 지리산 5대 명산 등정 완료



벽룡 산악회(회장 이종호)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로 지리산 천왕봉 등정을 다녀왔다.

2000년 처음 결성된 벽룡산악회는 그동안 국내외 명산 등정을 통해 교도 상호간에 화합을 다지고, 사찰의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는 신행단체이다.

지난 5월에는 중국 5대 명산중 하나인 황산에도 올랐다. 이번 산행에는 70대 노구를 이끌고이평원각자님도 동참하여 더욱 의미있는 산행이 되었다.

벽룡사 통신원 양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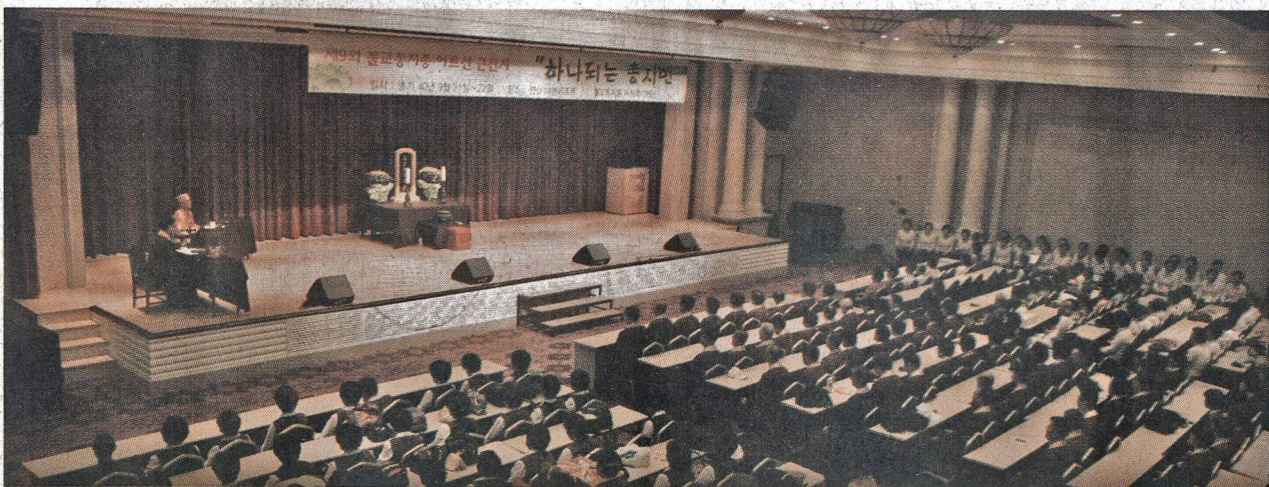
"하나되는 충지인"

충기40년 (2011) 제 9회 어르신 큰잔치

"하나되는 충지인" 제9회 어르신 큰잔치에 참가한 700여 교도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나이를 잊고, 모두가 참가하는 신나는 잔치 한마당이였다. 21개 사원에서 출전한 장기지랑은 연극, 무용, 노래, 품바 각설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충지상에는 정각사가, 만다라상에는 충지사, 육합상에는 혜정사가 수상했다. 모두가 하나된 충지인의 모습을 보여준 귀중한 시간이였다.



▲자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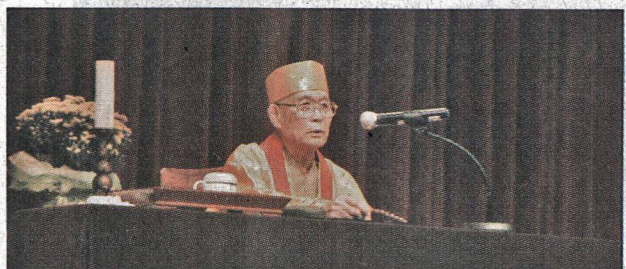
▲어르신 큰잔치 전경



▲지인사



▲국광사



▲효강종령예하 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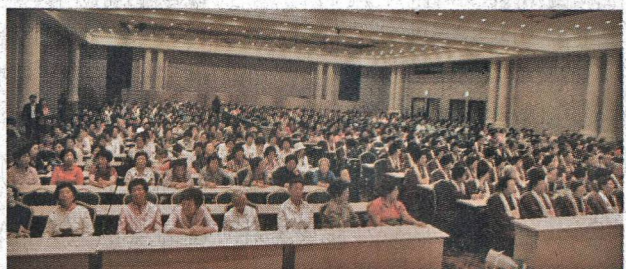
▲지성 통리원장의 축사



▲벽룡사



▲밀인사



▲스승님들과 교도들



▲노보살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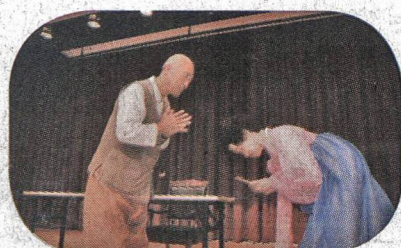
신행체험 발표



▲덕화사 김희애 교도



▲성화사 박월숙 교도



▲정각사 신영자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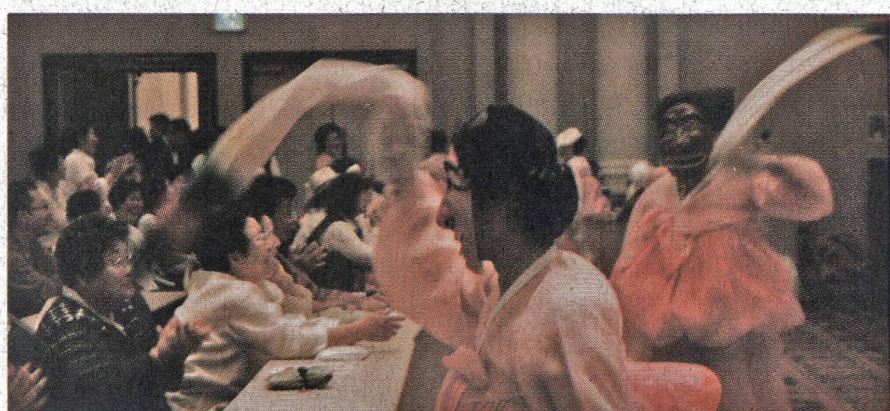
▲수계사



▲성화사



▲관음사



▲개천사



▲관성사



▲제석사



▲정심사



▲만보사



▲수인사



▲백월사



▲시법사



▲충지사



▲혜정사



▲정각사



▲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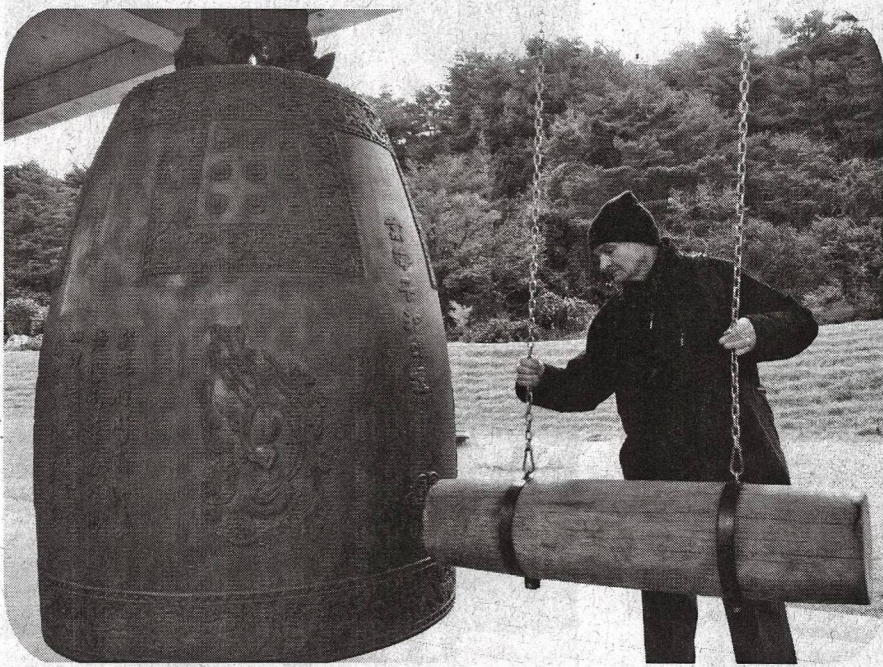
▲실지사



▲덕화사

제5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준비위원장 화령정사(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특별 인터뷰**

이 시대의 화두, 재가불교와 출가불교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에 걸쳐 진행되는 제5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이 대회조직위원장이며 교육원장인 화령 정사에게 대회 개요와 일정, 준비과정 등에 대해 들어본다. (인터뷰:김종열 총지종보 편집장)

❖ 화령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신 줄 압니다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저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총지종에서 주최하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금년으로 어느덧 5회 째를 맞이했습니다. 국제적인 이런 대회를 5년이나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텐데요, 이 대회의 태도와 그 동안의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 우리가 이 대회를 처음으로 기획한 것은 2006년 부터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도가 재가자들인데 반해 정작 불교계를 움직이는 것은 출가승려 위주의 불교입니다. 거기다가 기록에 치우친 불교이고 출가승들 또한 사회 물정에 어두워 사회

와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가 1700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종교에 비해 열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차이거나 하고 이윤만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불교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말 불교가 달라져야겠다. 사회와 소통하는 불교가 되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 불교와 사회가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대회를 기획했다는 말씀인가요?

▶ 지금 우리 나라 불교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면 우선 출가승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지요. 그리고 출가를 해야만 엔지 불도를 제대로 닦는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출가승들이 수많은 재가불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개개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조계종의 간화선을 앞세우는 불교는 대중들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불교, 특히 한국불교는 이제 트렌드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마디로 승속을 초월한 불교로서 재가생활을 하는 일반 대중들도 출가라는 것에 주눅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생활에서 당당하게 실천하며 누구나 대승보살로서 즉신성불이 가능하고 이 땅을 불국정토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하여 생활 불교, 승속을 초월한 실천불교 운동을 펼치려는 것이지요.

❖ 사실 우리 재가자들은 불교수행에 있어서 출가승보다 어떤지 열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총지종은 처음부터 재가불교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느낌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 불교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가불자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정말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런 점에 대



해서 외국의 사정은 어떤가요?

▶ 불교의 역사는 동양이 오래되었지만 서구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를 생활상에서 잘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는 사찰 전통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곧바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타성에 젖은 동양권의 불교도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불교의 실천에서 오히려 군더더기를 제거해 버리고 직접 부처님과 대화한다고나 할까요. 거기에 반해 동양권의 불교, 특히 한국불교의 경우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너무 신비화하여 불교를 오히려 일반대중들과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인들도 일부는 불교를 신비적인 눈으로 바라보



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구 불자들은 현대와 같은 물질위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불교를 통하여 삶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까에 수행의 초점을 맞추죠. 말하자면 출가니 재가니 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 생활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생활불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활 가운데서 불법을 실천하자는 것이죠. 한 마디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의 수행과 현실생활이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머리를 깎은 출가승이라도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 세속에서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가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출가나 재가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자신의 마음을 잘 살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자비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나 재가나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곧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9/1	10,000
개천사	무명씨	9/22	10,000
관성사	황성녀	9/1	10,000
관성사	박현숙	9/23	10,000
관음사	신막심	9/8	10,000
기 로 대 관		9/19	10,000
기 로 대자행		9/19	10,000
기 로 밀공정		9/19	10,000
기 로 법수원		9/19	10,000
기 로 법장화		9/19	10,000
기 로 법지원		9/19	10,000
기 로 불멸심		9/19	10,000
기 로 사홍화		9/19	10,000
기 로 상지화		9/19	10,000
기 로 수증원		9/19	10,000
기 로 총지화		9/19	10,000
단음사	천 공	9/5	4,000
단음사	법연지	9/19	10,000

만보사	민순분	8/31	10,000
밀인사	정정희	8/31	5,000
밀인사	이재원	8/31	10,000
밀인사	원 당	9/6	10,000
밀인사	모심해	9/6	10,000
밀인사	이희원	9/16	10,000
밀인사	이연수	9/25	20,000
백월사	김현중	8/26	10,000
백월사	진 평	9/16	5,000
법천사	시 정	9/19	10,000
법천사	원만원	9/19	10,000
벽통사	양지현	8/26	10,000
벽통사	양정현	8/26	10,000
벽통사	무명씨	8/30	20,000
벽통사	이종호	8/31	25,000
선립사	수 정	8/30	10,000
선립사	정복지	9/16	10,000
선립사	심지장	9/16	10,000

선립사	수 정	9/20	10,000
성화사	위배려	9/9	50,000
수인사	김봉기	8/26	10,000
수인사	장영택	9/1	50,000
승천사	원 봉	9/16	10,000
승천사	지선행	9/16	10,000
실보사	이순옥	9/2	5,000
실보사	조순애	9/15	100,000
실보사	장법계	9/22	10,000
실보사	해 정	9/22	10,000
실지사	정경자	8/26	10,000
실지사	이화수	9/20	10,000
실지사	정우석	9/20	10,000
운천사	반야화	9/7	20,000
정각사	김문수	8/31	10,000
정각사	김문수	9/6	10,000
정각사	구경희	9/7	20,000
정각사	박동휘	9/20	10,000

정각사	이정선	9/23	5,000
지인사	송효제	9/16	10,000
지인사	허성동	9/20	20,000
총지사	이인성	9/14	30,000
해정사	오혜인	9/2	20,000
해정사	이광호	9/2	20,000
해정사	무명씨	9/16	20,000
해정사	지성인	9/21	20,000
해정사	정은선	9/21	20,000
화음사	송호영	8/29	20,000
화음사	강순란	9/2	5,000
화음사	강다희	9/22	10,000
흥국사	지 정	9/16	20,000
	무명씨	8/29	100,000
	이혜원	8/30	5,000
	무명씨	8/31	50,000
신 바		9/6	100,000
정영진		9/6	100,000

임동수	9/16	30,000
최순전	9/19	20,000
박말조	9/19	5,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거에는 절에 가야만 불경을 구해볼 수 있었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누가 더 실질적으로 수행에 적용하고 정진하느냐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출가한 스님이라고 해서 불교에 대해 더 알고 더 잘 수행한다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산승절이라도 텔레비전이며 인터넷이 다 있어서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스님들도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출가한다고 해서 속세와 단절된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불교를 표방하여 현실의 삶이 곧 불법이 전개되는 법계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수행도량이라고 생각하여 그 가운데에서 모든 중생과 더불어 행복과 평화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불교는 지금과 같은 출가승 위주의 기복불교가 되어서는 사회와의 소통도 어려울 것이고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승려들이 귀족화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한 몫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생활이 불법이고 현실의 세계가 곧 불국토의 터전이 된다는 생각으로 생활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 생활불교란 쉽게 말하자면 관념적인 것을 떠나 생활 가운데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면서 각자의 행복과 사회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국제대회를 준비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원에 보정 김종인 박사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스텝진들도 호흡이 잘 맞아 그러저럭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말까지 40여 편의 발표 원고들이 수집되는데 번역 작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대회 책자 제작도 단 시간 안에 해야 하니까 힘든 부분이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일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 그게 가장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홍보 문제도 올해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넉넉지 못한 예산이 문제지요. 올해는 그나마 통리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년에는 집행부 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이 여의치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컸지요. 이러한 재가불자대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대회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또 우리 종단이 국제불교계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이런 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재가불교종단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교계에서의 우리 총지



중의 위상도 격상되고 또 실제로도 이런 대회를 통하여 재가불교운동, 생활불교운동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우리 총지중이 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을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겠네요. 지금도 교계에서는 총지중이 불교의 국제화에는 가장 열심이고 또 그 방면에는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총지중이 주도를 하면서 이 대회가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라는 타이틀로 대회가 열렸었는데 금년 대회에는 어떤 주제가 채

택되었습니까?

▶ 예, 이번 대회에서는 '승단불교와 재가불교'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이 주제를 놓고 재가불교와 승단불교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것이라든지 출가승 위주의 승단불교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재가불교, 생활불교의 장점과 미래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의 불교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속을 초월한 생활불교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회들이 출가와 재가를 초월한 생활불교에 대한 이념 정립과 각국의 재가불교의 실상에 대한 모색에 주안점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몇 분 정도가 참가하게 되는지요?

▶ 대부분이 재가불자들인데 스님들도 있습니다. 17개국에서 45명 참여할 예정입니다. 첫 회 대회 때부터 참가하신 분들도 여러 되십니다. 대표적인 분으로는 독일의 랍텐 센터의 거스윈트 박사 부부와 대만 대표로서 참석하는 쟁위링 씨 부부, 쟁위링씨는 현재 세계여성불자회의 사카디타의 회장으로 불교계에서는 국제적인 명성이 있습니다. 북경대의 석교교수인 짐 리브스 박사로 일본 대표로 참석하시고 태국의 불교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봉수레 씨도 매년 참석하고 있으며 중국의 불교인터넷 불교재선의 회장인 안후성 씨도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조직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거사림 회장으로 참석합니다. 그 밖에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지의 동남아권 재가불자지도자들과 생활불교에 관심 있는 저명한 스님 여러분이 참석하십니다. 이들 이외에도 국내 발표자까지 하면 5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비로 이 먼 곳까지 방문하시는 것을 보면 재가불교운동에 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악한 대회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주창하는 생활불교운동이 미래 불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짐이기도 하고요.

❖ 이번 대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26일 인천 공항 옆의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의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7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막식과 내빈 소개 및 기조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비폭력 연구소와 함께 경희대에서 28일까지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목동에 있는 국제선센터에서 토론과 한국불교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지게 됩니다. 29일 오전에는 장경궁 관람과 인사동 방문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오후에는 KBS홀에서 총지중 창종 40년을 기념하여 열리게 되는 통일음악예술제를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템플스테이를 겸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발표 인원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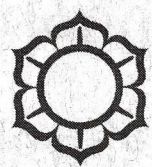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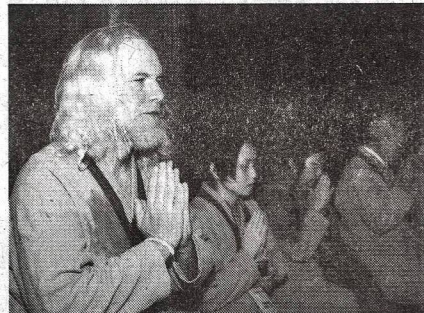
아 할 수 없이 분과토론회 형식으로 동시에 세미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좀 건조한 일정이지만 대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불자의 대부분은 재가불자입니다. 전체 불자의 수에 비하면 출가자는 극소수입니다. 우리 나라 불교가 부활하려면 그저 승려들에게 재불공이나 맡겨 놓고 보시나 하고 오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불자들이 몸소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밥맛을 모르는 것과 같고나 할까요. 이제는 모든 불자들이 제대로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에 있습니다. 그 행복은 저 멀리 서방정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나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이 아니면 무의미합니다. 그러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승보살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현실 사회를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재가불교대회는 우리 불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이 보리를 추구하는 보살이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뜻있는 불자들이 많이 동참해서 새로운 한국불교의 물꼬를 트는 이 불사가 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가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한국불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회의 성공과 원만한 회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성도하십시오.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중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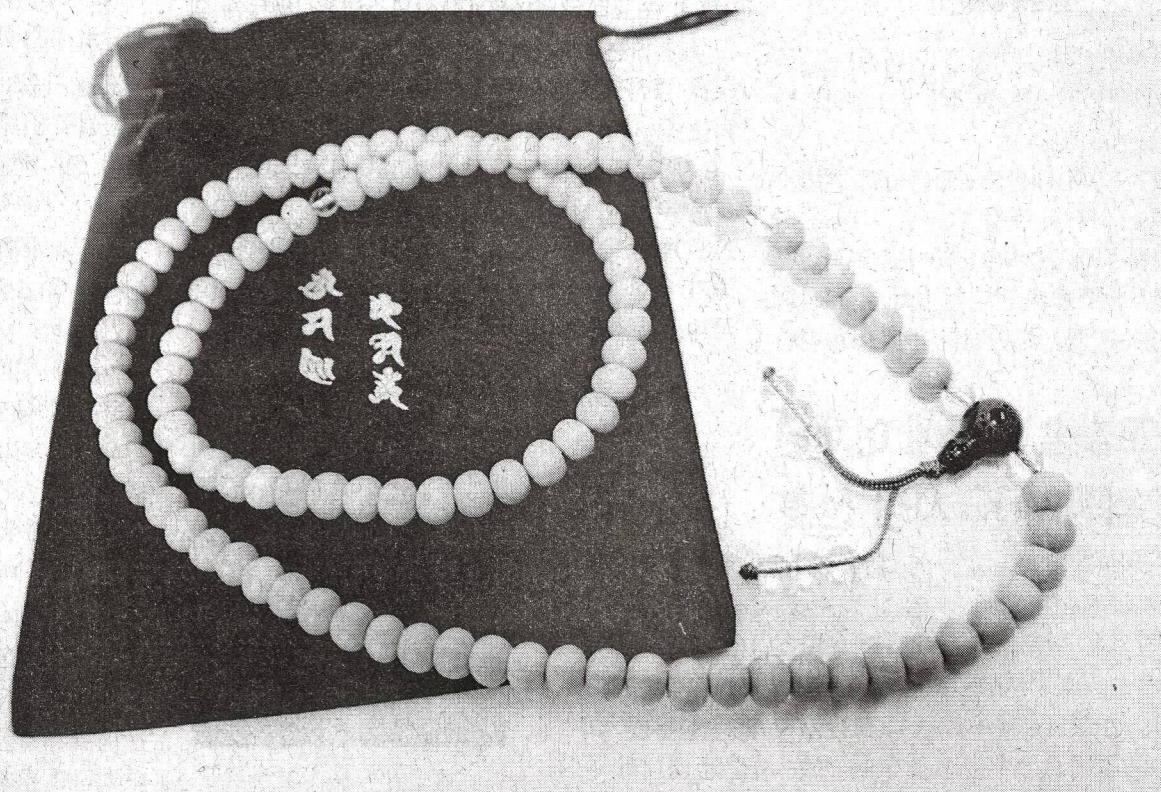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중 각 사원 주교(총지중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남북합동법회 봉행



남북대표단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 불교 대표단이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을 맞아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첫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위원장 심상진)은 9월 5일 오전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민족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불련 심상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합동법회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며 팔만대장경을 더 잘 보존하고 빛내는 데 기여하는 또 하나의 '통일 불사(統一佛事)'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고려대장경은 단순히 불경(佛經)을 새긴 것이 아니라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요, 합심과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장경의 조성을 통해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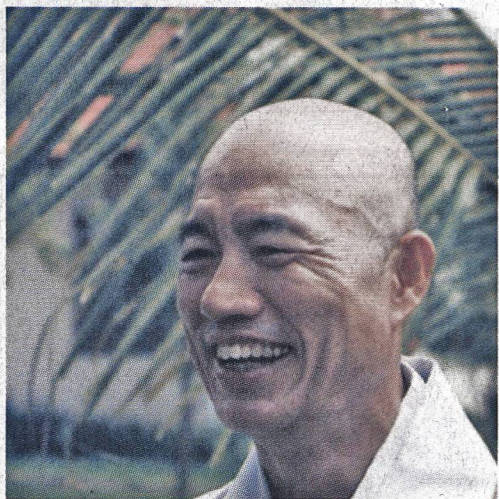
이에 앞서 4일 오전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 현대기술로 재현한 해인사본 <금강경> 목판본 1질(9판)과 <반야심경> (10판), 풍경(風聲)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금강경> 선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이며, '풍경'은 도선사가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측에 전달한 것이다.

한편 이번 합동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중진스님들과 인정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대표의장(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공동대표), 광진만 세계평화재단 부이사장 등 이웃종교인사 등 남측에서는 모두 37명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9월 3일 북경을 경유해 평양공항에 도착, 고려호텔에서 조불련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4박5일 일정에 들어갔다.

김종열 기자

제9회 대원상 포교대상에 승가 부문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 수상



시상하고 있다. 올해 포교대상 승가 부문에는 대상에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性觀) 스님을, 특별상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스님)를 선정하였다.

재가 부문에는 대상에 계간 『불교평론』을, 특별상에 사회적기업 '연우와함께' 이상근 대표를, 장려상에 거제자원봉사센터 오정림 센터장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콘텐츠 부문에는 특별상에 임우성 씨(영화 '홍터')를, 장려상에 강혜윤 씨(음반 'Samsara')와 문자영 씨(영화 시나리오 '마야')가 각각 수상하였다.

특히 포교대상 수상자인 성관스님은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불자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수원포교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하는 등 지역포교에 앞장섰다. 현재 로터스월드 대표이사로서는 캄보디아에 BWC어린이센터를 만들어 국제적인 교육, 구호 NGO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세계 국가의 아동을 돕기 위한 불사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한국불교의 국제포교불사와 해외 불사의 모델이 되고 있다.

불교방송 사장에 이채원 전 강릉MBC 사장 선출

재단법인 불교방송이사회는 9월 26일 총지중 지성 통리원장 등 1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을 가는 호텔에서 제7회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영담스님의 이사장 연임을 결정하고, 이어 투표에 의해 이채원(사진) 전 강릉MBC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이날 대한불교진흥원이 추천한 2인 후보

에 대한 비밀투표에서 12표를 얻은 이 후보를 사장에 선임했다. 이사장 영담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새 사장이 불교방송 직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실무형이라 과거 돈 쓰는 사장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장"이라 평가하며 "민영 미디어업 등 새 방송 환경에서의 경영에는 사장과 이사장이 업무를 나눠서 경영개선을 이뤄



나갈 것"이라 말했다. 신임 이채원 사장과 이사장 영담스님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김종열 기자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막

- 해인사 일원에서 11월 6일까지



9월 23일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김항식 국무총리, 김두관 경남도지사, 선각 해인사 주지스님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식을 갖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경상남도도와 합천군, 해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오는 11월 6일까지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를 주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과 해인사, 창원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진행된다.

고려대장경 천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대장경 천년의 역사와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에서는 '대장경천년관' 등 5개의 전시관에서는 고려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목을 받고 있는 전시는 역시 국보급 고려대장경 진본 전시

다. 이번 축전 기간 동안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중인 고려대장경(국보 32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판과 고려 각판(국보 206호) '화엄경 변상도'가 주행사장으로 옮겨져 대장경천년관 내 '대장경 보존과학실'에 전시된다.

해인사는 대장경천년축전을 끝으로 향후 100년간 고려대장경판 반출과 외부 공개를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이번 축전이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대장경 보존과학실은 대장경 천년 보관의 비밀을 간직한 해인사 장경판전의 건축 구조와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이다.

또한 대장경수장실에서는 고대 인도에서 종이 대신 나뭇잎에 쓴 불경인 패엽경, 티베트어대장경, 송판대장경, 화엄석경 등 세계 각국의 대장경 실물과 다수의 보물급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 우리민족의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참선을 체험하는 '정신문

화관', 60여 개국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판각 판화전이 전시되는 '세계교류관',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인 '세계시민관'이 국내외의 관람객들을 맞는다.

이번 축전 기간 동안 범보종찰 해인사에서는 국제예술제인 '해인아트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현대 사회의 화두인 '소통'을 주제로, 설치미술가 수빙(중국), 비디오 아티스트 빌비올라(미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34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회화, 사진, 조각,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개막일에는 특별행사로 신라 애장왕 3년(802년) 이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해인사 선원이 1천200년만에 개방됐다. 축전 주행사장과 해인사를 연결하는 가야산 휴류동 계곡 6km 구간에 조성된 걷기 테마로드인 '해인사 소리길'은 이미 9월 초 개통했다.

합천 해인사는 김종열기자

단기4344년 '개천절민족공동행사' 개최

지성통리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500여명 참석

"개국정신 토대로 통일조국 미래상 만들어야"

10월 3일 단기4344년 개천절민족(남북,해외)공동행사가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사직공원에서 열렸다.

불교총지중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단군성조제 제사를 지내는 천제의식과, 2부 기념식, 3부 개천절 헌정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다.

2부 기념식에서 개천절민족공동행사 이재룡 회장은 "우리의 역사를 돌아켜 볼 때, 한때의 슬기를 받은 우리민족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홍익인간의 가르침에 따라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새로운 문화를 꽃피워 왔다"며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찬연한 문화를 꽃피워 분단을 청산하고 조국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대회를 하였다.

이어 불교총지중 지성 통리원장은 경축사를 통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는 단군 성조의 개국 정신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꾸어 온 우리민족은 이제 세계를 향해 웅비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의 왜곡된 발전으로 인간성이 타락하고 사회는 매우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발전은 도외시한 채 물질적 인것만 추구해 온 결과의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천절인 오늘이 홍익인간이라는 개국정신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과 통일 조국에 대한 미래상을 만들고, 세계의 중심적 위치에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주역이 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개천절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장, 반재철 흥사단 이사장, 국회의원 김충환, 배영기

숭의여자대학 명예교수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남측에서는 사직공원, 북측에서는 평양 단군릉에서 각각 기념식을 갖고,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제주도 한라산, 태백산 천제단에서 천제의식을 거행하였고, 18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행사다.

사직공원=김종열 기자

“내가 조선의 국모다”

“편집위원이 가다”

남인의 칼 앞에서도 당당했던 여인 명성황후



▲ 사진 = 박묘정 편집위원

국모의 고향 여주

여주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경기도의 동쪽 끝 자락에 자리한다. 남한강이 남동쪽에서 북서로 관통한다. 남한강은 예로부터 수상운송에 유리하여 여주를 미곡 집산지로 발전시켰다. 세종대왕릉과 고달사지, 신륵사 등 유서 깊은 사적과 문화재가 산재해있다. 여주를 능현리에 위치한 명성황후의 생가는 당시 건물로는 안채만 남아있다. 1995년부터 복원 작업에 착수하여 2008년 일대를 사적지로 완성했다. 생가는 황후가 8세까지 살았던 곳으로 이후 한 양으로 옮겨 왕비로 간택되기 전까지 살던 감고당도 이전 복원하였다. 명성황후 기념관도 함께 건립되어 파란 만장했던 황후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었다. 생가 주변은 조선시대 민가도 함께 복원되어, 당시 서민들의 시대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황후의 탄생

명성황후의 집안은 숙종의 계비인 인현황후의 아버지 여흥 민씨 유종의 자손이다. 아버지 민치록은 6대조 민유종의 묘소를 관리하며 여주에서 생활하였다. 철종조 1851년 음력 9월 25일 부인 한산이씨와의 사이에서 황후의 운명을 가진 딸 자영을 낳는다. 그러나 아버지 민치록은 황후가 8살 되던 해 세상을 등지고 만다. 이후 서울로 이사한 황후는 현명한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양가의 규수로 착실히 성장해 나간다.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대원군은 안동 김씨 등 세도정치의 기반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양가의 규수를 찾고 있었다. 대원군의 부인의 추천으로 대원군의 눈에 띄어 16세에 왕비로 간택되었다. 황후로 책봉되어 대궐로 들어온 어린 민자영은 궁궐안의 여러 서적을 탐독하며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식견을 갖춘 황후로 성장한다. 어려운 가세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왕비로 책봉되었지만 황후의 삶은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원자와 공주를 출산하였지만 바로 잃는 슬픔을 이겨내야 했고, 시아버지 대원군의 실정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고종 황제의



▲ 사진 = 김중열 기자

내조도 황후의 몫이었다.

국모의 역할 그리고 남인의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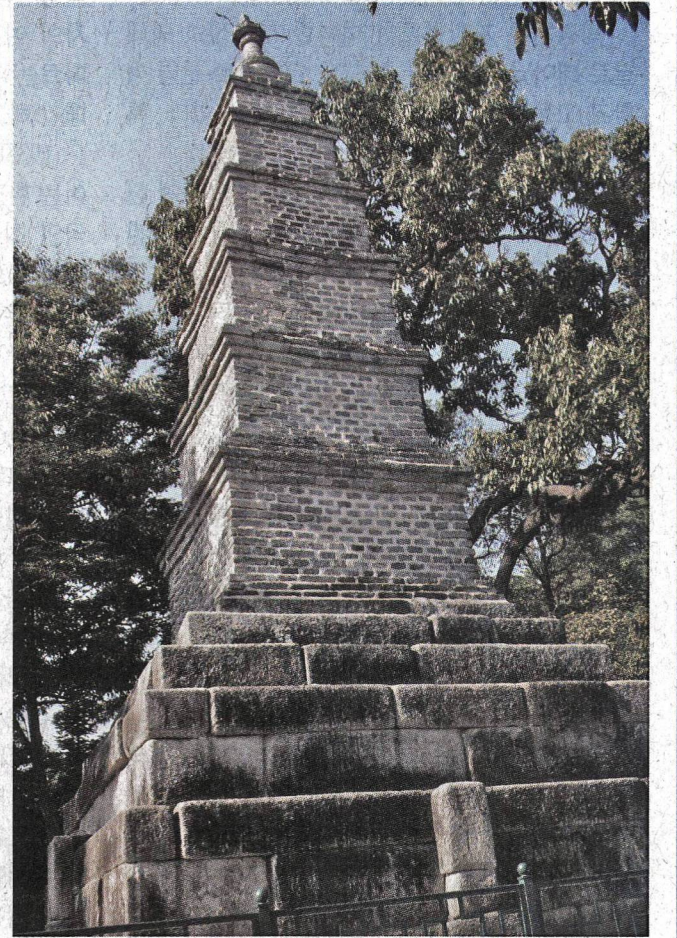
총명함으로 고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황후는 마침내 대원군의 섭정을 물리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된다. 쇄국정치를 고집하던 대원군이 물러나자 조선의 문물개방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외국을 통해 유입이 된 새로운 사상과 문물은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에 눈을 뜨게 한다. 반면 수구세력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일본상인들의



▲ 사진 = 최영아 편집위원

농간으로 백성들의 반일감정은 높아만 간다. 1882년 결국 신식군대인 별기군 특별우대에 반발한 구식군대 무위영의 군사들이 난을 일으킨다. 민씨 일족과 황후의 처형을 요구하는 사건인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원군은 다시 등장하고, 황후는 변장을 한 채 피신을 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다. 다시정국의 중심에 대원군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조정의 기득권층은 청나라 텐진에 주재하던 영선사 김윤식에게 통지하여 청나라의 개입을 요청한다. 청나라는 종주국으로써 속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에 빼앗긴 조선의 기득권을 되찾으려 군사를 이끌고 들어온다. 청나라의 개입은 대원군을 청나라로 호송을 하였고, 다시 황후는 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시기 황후는 보다 많은 선진 문물을 도입하고, 조선왕조의 근대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황후는 조일 수호통상, 신사유람단 일본파견, 청나라 영선사 파견, 영국과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이름을 하사하는 등 조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외교적

업적을 남긴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개혁을 구실로 조선의 왕권과 국권을 침탈하기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한다. 이에 황후는 ‘以夷制夷(이이제이)’ 적으로 적을 친다는 뛰어난 국방 외교전술을 강구한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뛰어난 외교력으로 러시아, 불란서, 독일을 회유하여 일본의 기득권 탈취를 골자로 하는 “삼국간섭”을 성사시킨다. 당황한 일본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만행을 계획한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새벽 일본은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 아래 황후의 암살계획을 실행한다. 황후는 일본의 자객 다카하시겐지의 칼에 의해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이후 조선을 강제 합병한 일본은 명성



▲ 사진 = 최영아 편집위원

이 바로 강가 쪽 암반 위에 벽돌로 쌓은 다층 전탑이다. 고려시대 건립된 이탑으로 인해 신륵사는 ‘벽절’이라고도 불렸다. 나옹화상의 부도탑 ‘보제존자석종’은 1379년에 제작된 것으로 고려 말의 대표적인 부도 양식을 띠고 있다. 또한 옆에 있는 석종비문은 목은 이색이 썼다. 이외에도 지금은 해체 수리중인 극락전을 비롯, 조사당 명부전, 다층석탑, 대장각기비 등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8점을 보유하고 있다. 신륵사의 또 다른 자랑은 바로 남한강의 수려한 풍광을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방송사의 애국가 배경화면으로 쓰이기도 했던 정자는 보수 공사를 해 올라가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편집위원들이 다층전탑 앞에서 바라본 남한강의 풍경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굽이쳐 흐르던 강은 4대강 여주보 사업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건너편 강변은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옮겨 놓은 듯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덮여두었고, 상류 쪽 모래톱은 거의 사라져가는 모습이였다. 아쉬움에 한참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인간의 손에 사라져버린 자연은 돌이킬수 없었다. 예전의 정취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부처님은 아직 계시니 그걸로 위로를 삼으며발길을 돌렸다.

지금 여주는 축제 중이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세계도자기 비엔날레와 여주진상품 축제가 열리고 있다. 편집위원들은 걸로 화려한 축제보다는 여주가 가진 역사적 흔적을 찾아보는 것을 권했다. 국모의 고향이자, 신륵사의 고장 그리고 사라져가는 남한강을 우리 교도들이 찾아 보기를 권했다.

취재= 편집위원 이인성,박묘정,최영아 통신원 벽룡사 양재범
정리= 김중열 기자

제78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 방안을 논의 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 40년 10월 18일(화) - 10월 20일(목)
- 장소 : 설악 대명리조트(강원 고성군)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충지종 통리원장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선 여성들

박경원(1901~1933)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류비행사인 박경원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이라 해도 경이로움의 대상일 것이다. 하물며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벌써 여성으로서 비행사의 꿈을

이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함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여성이다.

박경원은 가정형편이 넉넉한 부잣집의 막내 딸로 태어났다. 개화된 부모의 교육열로 신명 여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여 학업에 열중하였다. 특히 수학을 잘 해서 천재라는 찬사도 들었다.

그 후 일본 요코하마 기예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고, 귀국하여서는 다시 자혜의원 간호과 과정을 마쳤다. 이때까지는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1922년 12월 10일 용산 연병장에서 펼쳐진 안창남의 시범비행 연습을 구경하던 박경원은 드디어 간호사의 꿈을 접고 비행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박경원은 비행사가 되기 위해 1924년 12월 일본으로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동경에 있는 가마다 자동차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박경원의 생활은 극도로 힘든 상태였다. 두 번째 일본 유학을 만류했던 부모가 일체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취를 했으나 그가 고학생인줄은 아무도 모를 만큼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누가 '조센징'이란 말만 해도 그 자리에서 파귀를 올려 부치는 성격으로 많이 알려졌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던 그는 누구에게나 '박씨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서 조선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을 과시하였다.

자동차학교 입학 1년 만에 자동차 운전시험을 무난히 합격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 운전 자격증을 취득했다.

박경원은 바로 비행학교 항공과에 입학했다. 일본 신문기자들이 "남자들도 겁을 먹고 비행기 타는 것을 꺼리는데 박양은 어떻게 해서 파일럿이 되려고 하는지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날아다니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고 떨어져 죽는 물건으로만 아는데 나는 기필코 비행가로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굳은 의지를 보여 주었다.

박경원은 1926년 12월 28일 가마다 일본 비행학교 졸업과 동시에 3등 비행사 자격을 얻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민간여류비행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그 후 1928년 가을 2등 비행사 자격을 받았다. 당시 자주 열렸던 비행레이스에 나가 여성으로서선 언제나 혼자 임상 하였으며 비

행학교를 마칠 때에는 수석 졸업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 후로도 계속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비행연습을 계속하여 고국과 만주 그리고 구미 비행계획도 세웠다.

당시 일본 비행사들은 면허를 따면 자신의 고향까지 비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금의환향이었다. 박경원도 만주로의 비행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존중해서 먼저 고국 방문을 하기로 했다. 그의 고국방문 시범 비행 장소는 여의도 상공이었고 이 행사의 모든 준비는 일본에서 비행사로 활약중인 서웅성 비행사가 맡았다. 서웅성 비행사는 열을 먼저 고국에 건너와 박경원 비행사의 여자로서 역사적인 고국방문 시범 비행에 따르는 환영 절차 등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대기 하고 있었다.

1933년 8월 7일, 이날 아침부터 여의도가 보이는 한강 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인 최초의 여류비행사인 박경원이 비행기를 몰고 여의도에 나타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강 뚝은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도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여러 시간이 지나도록 서쪽 하늘에는 비행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며 돌아갔다.

박경원은 이날 아침 10시 35분에 그의 애기 청연호 (파란 제비호)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환승객들에게 손을 힘차게 흔들며 답례하고 비행기에 올라 기수를 고국으로 돌려 날아 올랐다. 그러나 이륙한지 50분만에 하꼬네를 통과하자 짙은 안개로 정강현 현악산중에 추락 참사하였다. 그녀는 애기 청연호 함께 현악산에 기수를 겨우로 박은 채 발견 되었다.

고도계도 계기도 제대로 없던 시계비행 시대에 현태탄을 넘어 서울하늘로 첫 비행을 해 보냈던 박경원의 꿈은 아깝게도 안개에 가린 현악산중에 묻혀버렸다.

우리나라 항공계를 위하여 무한한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박경원은 서른셋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희생되고 말았다. 추락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손목시계 바늘은 1933. 8. 7. 오전 11시 25분에 멈춰 있었다.

여류비행사 박경원은 어렸을 때부터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하늘을 날아 보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위해 한발한발 열심히 걸어나갔다. 여성에게 규제가 많았던 시절에 남성도 뛰어들이기 힘든 일을 잘 해내면서 여성들의 또 다른 세계를 열어 놓아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 주었다. 여성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라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자료:여성사전시판)

불교절화 <60>

절은 나이가 무려 오백 살이나 되었다. 법당의 기둥들은 나이만큼이나 주름살이 골져 있었고, 웅이가 박혔던 곳들은 먼저 썩어 없어져 목탁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 봄이 되면 그 구멍에 박새들이 새끼를 쳐 기르기도 하였다.

스님 한 분이 조용해야 할 법당이 시끄럽다고 그 구멍에 황도를 발라 막은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미 박새는 구멍을 터주는 아이의 도움을 받아 새끼를 치곤하였다. 물론 아이가 구멍 속의 황도를 꺼낼 때는 스님들 몰래 달빛 밝은 밤에 하였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도 남아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깨진 기왓장 사이로 들쭉날쭉한 한 뼘씩이나 자라나서 앙증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기왓장 틈새로 노란 민들레꽃이 여기저기서 피고, 어떤 때는 보랏빛 엉겅퀴꽃이 피었다. 요즘은 달맞이꽃이 병그는 철인데, 낮에 하품을 하다가 아이에게 들킨 적도 있었다. 스님의 낡은 방 천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쥐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찌, 찌의 찌이의 찌,"
곳간의 나무는 굵지 않고 아무런 소독도 없는 스님들 방 천장에서 달그락거리는 것이었다. 스님들 식사시간이 되면 쥐들은 더욱 극성을 부렸다. 바리때에 담겨 오는 산나물과 썩국, 송이버섯 냄새가 천장에 가득 퍼지는 모양이었다.

스님들은 절대로 쥐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 쥐들이 몰래 훔쳐 먹는 행동은 쥐들의 업이라고 하였다. 숙제를 하듯 스스로 그 '훔쳐 먹는 업'을 다 지워야만 좋은 몸으로 환생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쥐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배가 고파 저릴 거야."
아이는 배가 출출할 것 같은 쥐들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스님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했다. 언젠가 속마음을 말했다가 놀란만 당했던 것이다.

"너 참 바보구나. 쥐가 불쌍하다고? 틈만 생기면 우리를 참선 공부방 망쳐놓는 녀석인데."

"뜨락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쥐들에게 밥을 내주란 말이구나."
"네 공부하는 시간만요."
"비가 오면 어떡하구?"
"그땐 놀면 되지요."
"바보가 따로 없구나. 허허허."

스님들이 쥐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러했다. 공부에 깊이 들러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쥐들이 방해를 놓곤 하기 때문이었다.

스님들은 아이에게 부엌일도 시키지 않았다. 불을 만지는 일이 아주 위험해서였다. 언젠가 스님들이 화들짝 놀란 일도 있었다. 아이에게 야궁이에 불을 지피라고 했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넣어 스님 방의 장판을 누렇게 태웠던 것이다.

바보 동자



물론 그날 스님들은 방 구들이 설설 끓어 잠을 한숨도 못 잤었고, 아이에게는 정랑(淨廊, 변소) 청소도 시키지 않았다. 가장 깨끗해야 할 정랑이기 때문이었다. 그 절의 정랑은 전망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정랑은 문을 닫지 않았다. 앉아 공공 일을 보면서 시각에 따라 변하는 앞산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였다.

앞산은 아침 햇살에 세수를 하고, 비가 내린 후에는 흙이불 같은 구름자락을 돌렸다. 저녁에는 또 수만 마리의 잠자리들이 날갯짓하여 허공에 금가루를 뿌리는 듯한 풍경을 만들었다. 그러다가도 산그늘이 접혀들면 허공은 점 하나 없이 텅 비었다. 아이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하루 종일 미소를 머금고 다녔다. 아이에게 아직 한번도 꾸중을 하지 않은 분도 있었다. 바로 금강 스님이었다.

금강 스님은 묵언(默言) 중이었다. 묵언이란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수행 방법이었다. 금강스님은 묵언에 들어간 지 벌써 10년째라고 했다. 스님들은 모두 다 금강 스님을 절의 보배처럼 생각했다.

"크스님이 되고 말 거야."

그러나 아이는 금강 스님을 보면 목구멍에 무엇이 걸린 듯 답답했다. 묵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이는 맛있게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평소의 습관대로 다람쥐처럼 법당 옆에 있는 느티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제는 다람쥐도 아이를 무시하지 않았다. 아이가 늘 먹을 것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다람쥐와 나무 위에서 장난을 쳤다. 그런데 아이는 다람쥐 흉내를 내다가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때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죽어야지."

아이는 곧 죽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자 스님들이 큰 경사가 난 것처럼 다 모여들었다. 아이는 또 생각했다.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숨을 쉬지 말아야지."

아이는 숨을 쉬지 않으려다가 얼굴이 발개지곤 하였다. 스님들은 금세 눈치를 챘다. 웃음을 참느라고 장삼 속에 감추어진 배꼽을 쥐기도 하였다. 스님들은 아이를 풀려주고 싶어 눈

을 찡긍거리며 두리번댔다.

이윽고 젊은 스님이 말했다.

"아이가 죽었으니 물어봅시다."

그 스님의 말이 떨어지자 건장한 스님들이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아이는 여전히 죽은 채 하였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아이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방울새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나뭇잎 빛깔의 맑은 개울물이 흘러가는 소리도 들렸다. 절 앞에 있는 이끼기 돌다리를 건너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이끼기 냄새가 꽃향기만큼이나 향기로웠다. 돌다리를 건너서 젊은 스님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주춤거리고 있었다.

"아이를 어디에다 묻을까?"

"글세."

대답을 하는 스님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눈을 가만히 떠보았다. 저만치 금강 스님의 모습도 아른거렸다. 스님들이 계속 망설이자 아이는 참을 수 없었다.

"죽은 저를 저어기 큰스님들 부도 옆에 묻어주세요."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말하였다.

스님들은 잠시 킁킁 웃다가 말하였다.

"죽은 사람도 말을 하네."

"오죽 답답하면 말하겠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스님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답답해하던 금강 스님이 입을 열고 말았다. 말문이 터진 금강 스님 눈에는 아이가 관세음보살로 보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금강 스님은 오로지 큰스님이 되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이처럼 죽은 채 하다가도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 녀야말로 나의 스승이구나."

그제야 젊은 스님들이 눈을 휘둥그레 치켰다. 금강 스님에게 걸었던 큰스님 출현의 기대가 바보 아이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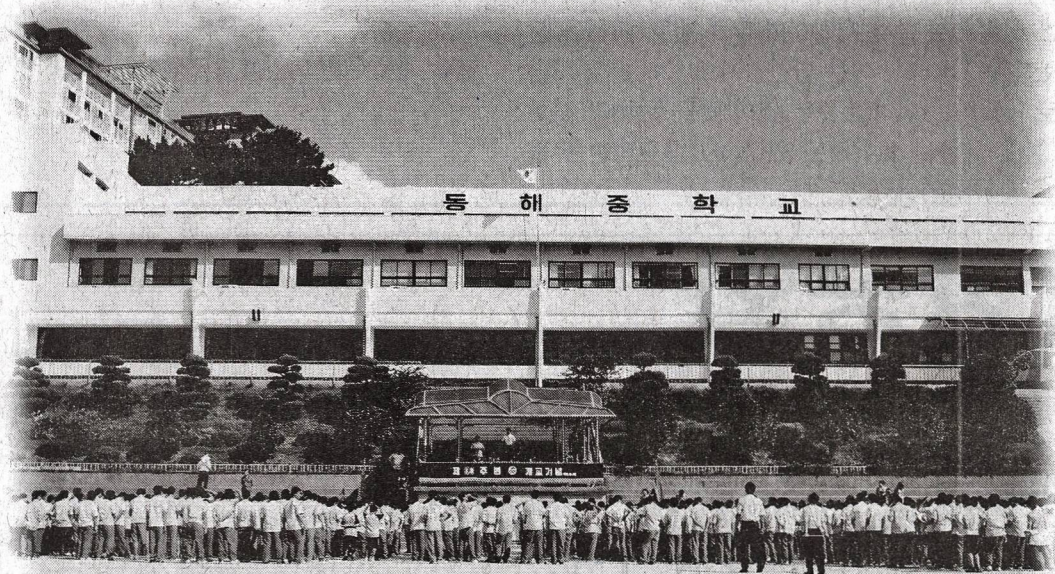
그런데도 금강 스님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합장한 채 일어설 줄 몰랐다. 잃어버렸던 참말을 되찾게 해준 아이가 고마웠다. 큰스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사슬에 묶여 있던 자신을 거듭나게 해준 아이가 스승 같을 뿐이었다.

아이는 젊은 스님들 손에서 빠져나와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자신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게 한 다람쥐의 점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아이는 신발 한 짝을 다람쥐 밥을 주는 땀 판처럼 생긴 바윗돌 위에서 찾았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아이가 신발을 흘린 곳은 느티나무 그늘이었던 것이다. 다람쥐가 몰려다 놓았을까. 본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축 개교 44주년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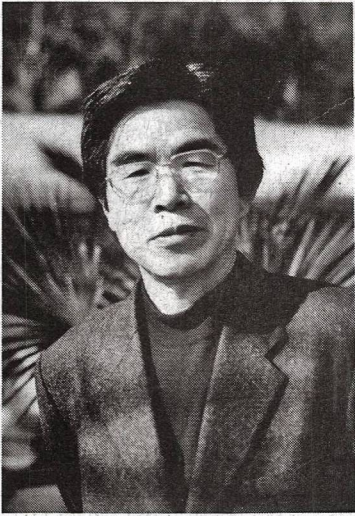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날마다 좋은날

불교와 함께한 인생행로

정각사 단월회 강 경 중



불교와 맺은 첫 인연

내가 인생문제에 많은 의문을 갖고 이를 풀어보고자 불교에 입문하기 시작한 것은 30대 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불교와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불교 신자였지, 교리와 수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때부터였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할머니를 따라서 밀양 삼문동의 심인당에 나간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부산 금정산 기슭에 있는 심인당에 나갔으며, 대학 다닐 때는 일 년에 겨우 몇 번쯤은 하월곡동 진각종 본원에 나간 적이 있으니, 나의 종교적 행로는 불교 즉 밀교에서 첫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 불교와의 인연은 그런대로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지만, 당시 내 인생에 절실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목적의식 없이 나가게 되었으며, 나오라고 권하고, 남이 가니까 따라나가는 정도였다.

인생 고뇌와 방향

군복무를 마치고 보사부 공무원으로 아동복지기관에서 첫발을 딛게 되었는데, 이는 심리학이란 내 전공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이고 보람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제대로 된 대우가 없었고, 장래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으며, 부산시청 공무원으로서 몇 년 근무하다 그것도 하 루아침에 사표를 던지고 마침내 교직에 몸을 두게 되었다.

당시는 교사가 모자라서 부산에도 자리가 있었지만 굳이 남해의 오지, 여수가 편히 건너다보이는 바닷가 시골 고등학교에 가게 된 것은 도시를 멀리하고픈 염세적인 일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대로 그 곳에 정을 붙였으며, 이곳에 내 뼈를 묻으리라는 마음도 먹어보았지만, 세상일이란 것이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그 외 교향인 밀양 모 고등학교의 부름

을 거절하지 못해 2년이 채 못되어 남해를 배신하고 밀양으로 갔지만 이 역시 사정이 여의치 못해 2년 안에 부산 해운대 모 중학교로 옮겨야만 했으니, 사회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방향기간이라 할 수 있으니, 당시 얼마나 내면의 갈등과 방향이 심각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된 데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문제도 있었으며, 당시 유신독재라는 시대적 상황이 나를 벼랑으로 내몰았고, 또 말 못할 사생활의 일면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로 고뇌하고 방황하다 보니까 자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 자연히 종교에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유혹을 많이 받아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집도 뒤져보았으며, 교회에도 나가 보았다. 다음으로 증산도에 대해서도 책을 읽고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 밤새워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했으며, 부산 영도에 있는 천리교 교당에도 나가보았고, 원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전을 뒤져 보기도 했다. 그 외 여러 종교들에 교리적으로 접근

해 보았지만 깊은 맛을 느낄 수 없었으며, 나의 이 고뇌와 갈등을 속 시원히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불교와의 새 인연

내 나이 삼십대 후반, 어느 날, 그 날도 갈등과 고뇌 속에서 위로라도 받기 위해 모처럼 시골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한 나절을 침묵으로 앉아 있던 내가 돌아오려고 하니, 어머니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꽤 먼 버스 정거장 까지 따라 나오셨다. 그러고는 불교독송집 한권을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고민이 있으면서도 말 못 하고 그냥 가는가 보구나. 나는 무식해서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네가 차 안에서라도 한번 읽어 보아라.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니...” 나는 그 책을 받아서 버스 안에서 무료한 도 달릴 겸 책장을 펼쳐보게 되었다.

그 책에서 처음으로 반야심경을 보게 되었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구절이 번쩍 뇌리에 깊이 꽂혔다. 당시 나는 나름대로 그 구절이 “이것이 저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이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어쩌면 나의 지친 고집이고, 스스로를 속박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얼마든지 달리 질 수 있고, 따라서 스스로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삶의 공간도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을.....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다. 당시 내가 처한 상황이 사궁지수요, 사면초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다음날부터는 세상이 새롭게 다가왔다.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이 어제와 달리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다. 아니,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차에 총지종 원정 종조님께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서울 불광동 화강을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얼마 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총지종 본산으로 올라가서 정식으로 사리장치를 친견하게 되었다. 동근 구슬, 동글게 형성되다 만 구슬, 모양과 색체가 다양한 사리를 친견하고 인생이란 결코 허무한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계속)

신행수기

참회는 세상의 모든 원망을 무너뜨리는 참다운 공덕

정각사 신영자 보살



참회합니다. 정사님들 그리고 보살님, 각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각사에서 온 신영자 보살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천지가 알고록 지은 죄를 참회하라는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아서겠지요. 젊은 시절 우리 각자님이 바람을 피워 밖에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제 자신의 죄인 줄도 모르고 각자님을 원망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학교도 안가고 결석을 하니가 아버지 닳았다면서, 인간이 안 되려면 학교 다니지 말라며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독한 년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지 자식을 때리나 하시면서 차라리 나를 때려라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고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같이 울었나 모릅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아이에게 학교를 왜 안 갔는지 물으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손에서 전학 왔다고 친구들이 놀린다

했습니다. 그럼 사정을 엄마에게 얘기 할 수 없었고, 집에 오면 학교 안 간다고 때려 몇 번이나 집을 나가 죽고 싶었다 했습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나요 자식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편의 작은 집에도 내 업인지 모르고 작은 대를 막 때리고, 몰어뜯고 했습니다. 부모 친척들이 살지 말고 친정으로 오라 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육남매 맞이로서 형제들에게 장애를 주고, 금덩어리 같은 자식들을 왜 작은데에 줄 수 없다며 열심히 살기로 마음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마음이 안정 되곤 했습니다. 다행히 총지종 불법을 만나 내 업장을 깊이 참회하고 바다의 파도도 큰 바위를 뚫는데 일심 참회 정진하면 지금의 남편이 일등 남편으로 돌아 올 것이라 마음속으로 서원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자님이 돌아 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하루는 앉으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싸우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참회하니, 더 없이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각자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남겨주셨고, 자녀들도 모두가 바른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불법을 만나 진심으로 참회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덕높으신 종령님, 스승님, 그리고 북 많으신 우리 보살님들께 이런 구구한 사연을 말씀드린 것에 용서를 빕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참회하고 나니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제가 이법을 안 만났더라면 우리 가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신행수기는 제9회 '어르신 큰잔치' 식전행사로 마련된 신행체험단 발표에서 부산 정각사 신영자 보살님의 내용을 녹음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총지종의보감

난소낭종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일련의 과정 뒤에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신체기능의 불균형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양한 여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여성질환 중 상당수는 여성건강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자궁 및 생식기의 기능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즘엔 출산경험이 있는 20.30대 젊은 주부에서 미혼여성, 심지어 학생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대표적 여성 질환 중에는 자궁근종과 더불어 양성종양의 일종인 난소낭종이 있다. 매달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영향으로 난소에 주기적으로 성숙과 배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원활치 않아 배란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난소의 점막에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며 낭포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난소낭종이라고 한다.

한의학적으로 난소낭종의 원인

은 외부의 습하고 찬 기운이 신체 내부에 들어와서 전신의 기혈흐름 및 조직의 수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몸 안에 불필요한 독소인 습과 담을 형성하고 이것이 덩어리로 변형된 것을 말한다.

난소낭종의 종류는 황체 낭종, 난포성 낭종, 루테인 낭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얇은 막 안에 혈액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불리는 초콜렛낭종이 있다. 이 초콜렛낭종은 자궁내막 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소낭종의 증상들은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꼭꼭 찢는 듯한 아랫배의 통증, 하복부의 팽

만감, 소변불리, 상충되는 열감, 자면서 흐르는 식은 땀, 가슴 답답함,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 난소낭종은 장담(腸疝)이라 하여 "장담은 장의(腸外)에 발생하고 월경은 주기에 따라 흐른다"고 하였다. 장담은 자궁에 생기는 종양이 아니고 자궁과 장 사이에 생긴다고 보았다.

난소낭종은 아무리 증식하여 거대하게 되어도 난소 중에 정상조직이 얼마간은 잔존하여 난소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월경에 이상이 없고 수태도 가능하다. 다만 유경(有莖)낭종의 꼬이는 경염전이 일어나면 하복통, 구토, 발

열 등의 증상이 있고 거대낭종의 경우 복부팽만이 심하고 근처 장기를 압박하면 소변빈삭, 배변 장애 등을 초래하고 태아를 압박하면 발육 장애, 분만 장애 등을 초래한다.

난소낭종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습과 담을 제거해주면서 기운을 풀어주는 거담제습방법을 쓰면 소실된다. 또한 몸 안에 남아있는 찬 기운을 없애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들의 자궁 및 생식기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 어떤 병적 치료의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겠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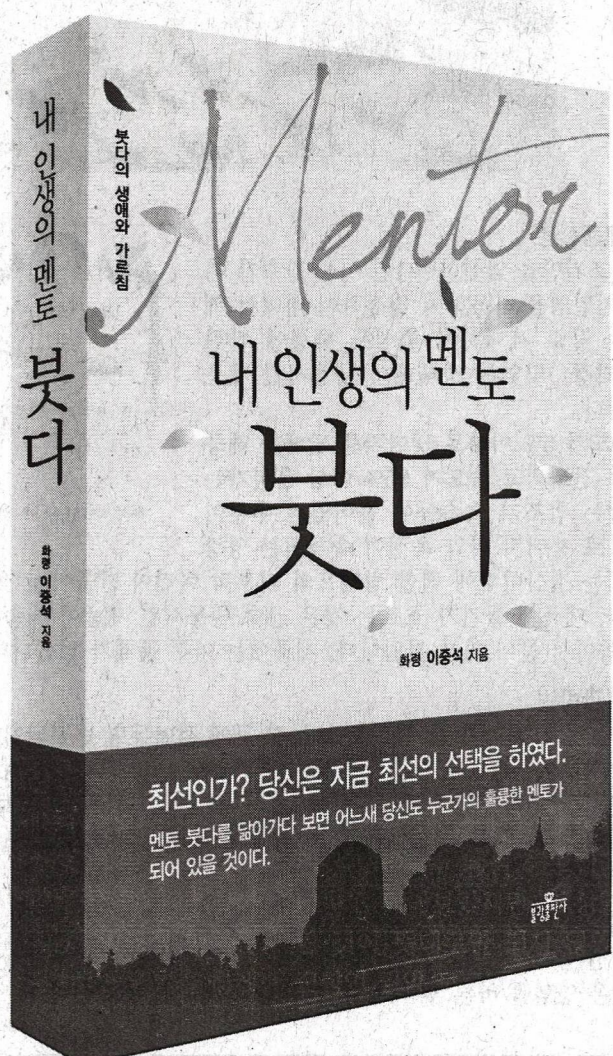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경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풍경소리

저질러 시도해 보라

매 순간 찾아오는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왔는데도 우물쭈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자주 무시하다가
기회를 잡는 법을 아예 잊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주범은
단혀지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이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저질러 시도하고 마땅히 실패해 보십시오.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상(군승법사)

눈을 도려 내려는 사람

옛날 어떤 사람이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눈병을 앓는다고 생각하니?"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눈병을 앓는다."

친구가 말하였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눈병을 앓는 법이다."

나는 아직 눈병을 앓지 않지만 내 눈을 도려 내
고자 한다. 나중에 눈병을 앓게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눈이 있으면 눈병을 앓을 수도 있고 앓지 않
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눈이 없으면 눈병을 앓는
것 같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캄캄한 세상을 헤매며 살게 될 것
이다."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양심의 기준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유경

이달의 사진

처처가 수행처인 것을...



부안 내소사 /김종열 기자

VISUAL
불교총전

제28화

나는 세간의 모든 서원을 세워서
반드시 위없는 도에 이르리라.

부처님의 시주

글.그림/정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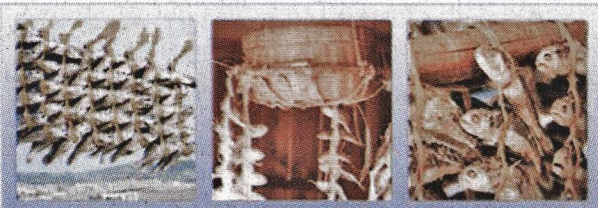
octagonp@paran.com

중생의 시주



내용참조: "불교총전" 19p-3절-1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鰯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중복되는 인척관
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
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
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물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
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아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김장호)
농 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제품설명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
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엮어서 깨
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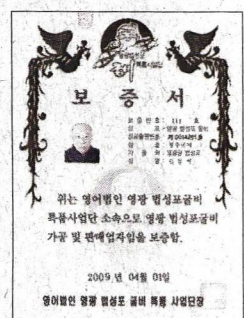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
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
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
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
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급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
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
지 됩니다.

·요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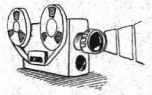
생선 굽는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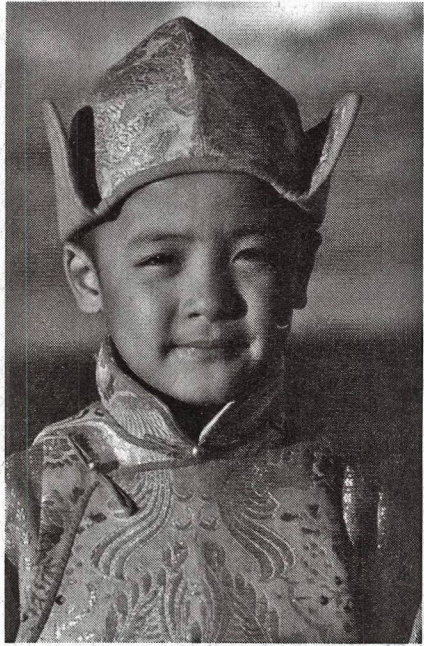
※ 제조원 청수굴비는 영어법인 영광굴비 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⑫ /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쿤둔〉

가장 훌륭한 인간에 대한 보고서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불교영화는 대부분 달라이 라마에 관한 영화입니다. 현대 미국영화의 거장 마틴 스콜세지 또한 달라이라마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 다. 그가 만든 〈쿤둔 Kuntun〉(미국, 1997)이라는 영화에는, 지금의 14대 달라이 라마가 선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임을 입증 받는 2세에서 시작해 조국 티베트를 떠나 인도로 망명길에 오르는 18세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 마틴 스콜세지는 ‘슈퍼맨’에 대한 환상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스스로에 대해 “난 그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승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영화는 달라이 라마에게 비범한 존재의 역할을 맡기고, 그 초점 안에 머물렀습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같은 영화에 열광했던 서구인들에게서 달라이 라마는 또 다른 모습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철저하게 영웅주의 영화의 문법을 따릅니다.

달라이 라마의 비범함은 탄생에서 시작합니다. 2살 때 라모 된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라고 우깁니다. 전생에 티베트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였기에 항상 상석에 앉았었는데 그 습관이 남아서인지 보통 애들과 달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중심이 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달라이 라마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전생의 그림자를 찾는 범주에 머물렀습니다.

환생에 대해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인 달라이라마는 불사조처럼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임직에 들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는 꼭 다시 환생한다고 티베트 사람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13대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든 후에도 환생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라모 된들이 이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소년은 태어날 때 불교의 성조인 까마귀가 소년을 지켰으며, 포탈라궁이 있는 라싸에 가겠다고 하는 등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 13대 달라이 라마가 사용했던 물건을 찾아내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마침내 소년은 14대 달라이 라마가 됩니다. 평범한 소년 라모 된들이 13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임을 인정받고 쿤둔이 되는 과정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14대로 이어지는 긴 시간을 이어오면서 최고의 불교 교육을 받았고, 또 명상수행에 정진해왔기에 무언가 남다를 것이라고, 또 그는 관세음보살 현신으로 추앙받고 있으니 중생과는 다른 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는 앞에서 소년이 달라이 라마로 검증받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신비주의적인 것과는 다른 기대입니다. 우리가 달라이 라마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영화 〈쿤둔〉에서 달라이라마가 성장했던 환경은 우리의 기대를 입증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되고나서 사춘기 소년이였을 때 티베트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아서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상상으로 무장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사찰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죽이고, 티베트 문화를 말살했습니다. 달라이라마를 암살하려는 기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달라이라마는 인도 북부 다람살

라로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게 달라이 라마가 조국 티베트를 잃고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조국을 떠나 다람살라로 망명하기까지 격동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소년이 보여준 모습은 결코 범상치 않았습니 다. 개인적으로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나라를 잃는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으므로 달라이 라마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 달라이 라마가 보여준 행동은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을만한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자기 조국을 구하기 위

중국은 강했으므로.

그런데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달라이라마는 아주 천진한 말을 합니다. 모택동이 머리에 빨 달린 괴물인줄 알았는데 그 또한 자신과 닮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모택동에 대해 사소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구두가 반짝였다는 것, 소매가 닳아서 반질반질했다는 것을. 이런 면을 기억한다는 것은, 모택동을 인간적으로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나’와 대적해 있는 적으로 보기 보다는 그냥 인간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런 보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생각’이나 ‘우리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면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의 현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는 가리왕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던 인육선인처럼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강한 적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또한 비폭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양인들이 영화나 책 등을 통해 중국의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티베트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쿤둔〉도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의 티베트 침입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고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티베트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티베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침묵하던 그들이 무슨 변덕이 생겨 갑자기 티베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달라이라마에게 열광할까요? 답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조국 티베트를 잃고 세상을 얻었다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라이 라마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고, 세상을 얻는 일이 결코 우연히 얻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지도자로 인도 변방에서 초라한 삶을 연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티베트 불교를 세상에 알렸고, 달마의 중국 전법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코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달라이라마는 ‘지혜의 화신’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달라이라마가 인도 국경을 통해 망명길에 오르는 중 어린 병사가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때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통해 너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즉 달라이라마는 인간이면서 지혜와 자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내면에 결코 훼손되지 않은 완벽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그것을 발굴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마틴 스콜세지는 지금까지 〈비열한 거리〉 〈택시 드라이버〉 〈성난 황소〉 등을 통해 밀바닥 삶을 묘사했었습니다.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로 이해했을 때 동물의 삶을 살 수도, 성인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스스로 동물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추악한 삶을 파헤치는데 골몰했던 감독은 이들의 냄새나는 삶에 완전히 지쳤는지 그는 갑자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찾아 나섰고,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것이 달라이라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의 〈쿤둔〉은 가장 훌륭한 인간에 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기고가 김은주



해 중국으로 가 모택동을 만납니다. 당시 어린 아이였던 달라이라마와 노련한 정치가였던 모택동의 만남에서 달라이라마가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달라이 라마는 모택동의 주장에 말 한 마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 다. 티베트는 힘이 없고,

〈금강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전생에서 인육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사지를 찢기는 고통을 당하였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상’ 즉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아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달라이라마가 어려서 중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한없이 바랬었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침묵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앞 다퉈 달라이라마를 도와주려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주고, 그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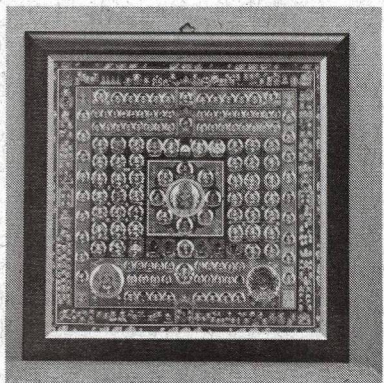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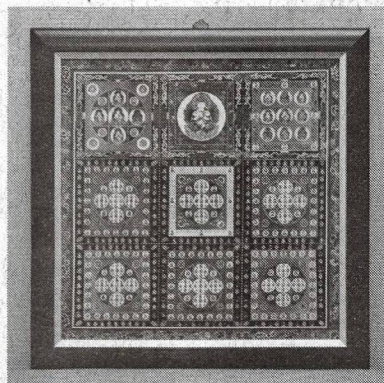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점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제 5 회 국제 재가 불교 지도자 대회

주제: 승단불교와 재가불교
Monasticism and Lay buddhism

- 재가불교와 승단불교의 근본적 차이
- 승단불교 전통의 장단점
- 재가전통의 장단점
- 재가불교 교단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승단전통 내 재가자의 역할
- 승단불교 전통의 미래
- 재가불교의 미래
- 승속을 초월한 생활불교의 확대 방안

THE 5TH
LAY
BUDDHIST
FORUM
2011

2011. 10. 27(목) ~ 30(일)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올림픽공원)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문의: 02)508-8933, 552-1080~3

주관: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주최: 불교총지중,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선센터

